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한국-필리핀 보훈분야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필리핀 보훈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델핀 로렌zana 필리핀 국방장관, 한국-필리핀 참전용사 후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필리핀 간 최초 보훈 업무협약으로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용사 단체와 후손 간 교류 증진 등 보훈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외 유공인사에 대한 정부포상식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이날 포상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인사 5명 등 총 27명을 정부 포상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더욱 존경받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우와 감사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희생’ 기억할 것”

###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윤석열 대통령과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 근본적 안보 능력 갖추겠다”

“확고한 보훈이 국방력 근간, 합리적 보훈 체계 만들 것”

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위로의 뜻을 전한 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다. 우리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 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

### 유엔참전용사 등 60명 재방한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9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41명과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19명 등 60명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재방한 행사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재방한 참전용사 중에는 호주 해군 이등병 선원으로 참전해 해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한 만96세의 최고령 제럴드 세퍼드 참전용사, 영국 육군 상병으로 참전해 후크고지 등에서 투혼을 발휘한 빅터 스위프트 참전용사, 부부가 각각 참전용사와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이천봉·노재덕 교포 참전용사가 포함됐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하고, 25일에는 오전에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행사를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7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풀만에서 열린 감사만찬에서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



사와 예우를 다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